

# 시대의 어둠 가른 인권변호사들의 생애

한승헌·황인철·조영래 변호사 기념·추모문집 간행돼

얼마 전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상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 일이 있었다. '전관 변호사' '사건수임 전문브로커' 등 법조계 문제들이 언론에 대두되며 새삼스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멀기만 한, 심지어 "가진 자만을 변호하는 가진 자"라는 비난까지 받는 변호사.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한다"는 변호사 윤리 강령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산업계해 등 돈도 되지 않는 노동자 관련 사건과 시국사건을 기꺼이 수임하며 각종 인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인권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들 가운데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격 세 사람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간행돼 나왔다. 한승헌 변호사의 회갑기념문집 「한 변호사의 초상」과 「분단시대의 피고들」(범우사), 황인철 변호사의 추모문집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문학과지성사),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가 남긴 글을 모은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창작과비평사)와 「조영래 변호사 변론선집—그 인권변론의 발자취」(까치)가 그것들이다.

## 한 인간주의자의 외길 30년

한승헌 변호사의 변론사건 실록 「분단시대의 피고들」은 그가 맡았던 주요 시국사건들의 피고가 당시 상황을 솔회하는 형식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적」 필화사건의 김지하씨, 동백림사건의 이응로씨, 민청학련사건의 정상복씨, 방북사건의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 등 '피고' 총 55인의 체험담은 3공화국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련의 길에서 한번도 물러서지 않은 인생역정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어떤 조사(弔辭)」 필화사건으로 몸소 옥고를 겪었던 한변호사 자신의 체험담이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칼바람을 일으키던 72년, 사형제도를 비판한 수필 한 편이 꼬투리가 돼 아홉 달의 옥살이를 한 것.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김지하씨의 변론을 맡으려 한 댓기였던 셈이다.

석방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개인 연구소를 발족시켰고, 월간 법률잡지의 주간으로 일하다가 후에 영세 출판사 '삼민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80년에는 조각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사

인권변호사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한승헌, 황인철, 조영래 세 변호사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잇달아 간행됐다. 그들이 맡았던 사건의 '피고'들과 각계의 지인들이 대거 참여한 이 책들은 분단 세 변호사의 개인사와 질곡의 현대사를 복원했을 뿐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진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준다.

홀 모자라는 두 달 동안 햇볕 한번 못 본 채로 지하실에서 온갖 고문과 수모를 겪었"으며, 실형을 받은 후에는 서울구치소, 육군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를 순차로 옮겨다니며 1년간 복역했다.

이 책과 함께 나온 회갑기념문집 「한 변호사의 초상」에는 1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그들이 아는 한변호사의 개인적인 모습을 내밀하고 친근하게 그리고 있다. 시인 고은씨는 한변호사를 가리켜 "협상국은 사천왕도 그를 만나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산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을 마련하는 일" (한변호사의 시 「노숙」 중, 그는 시인이기도 하다)이라는 그의 신념은 꼬박 30년간 외줄기 같이었던 변호사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감동적이다.

한편 고 황인철 변호사의 정성을 기리는 첫 작업인 추모문집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는 올 연초에 간행됐다. 이 책에는 이철씨와 김지하씨를 비롯해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의 이태복씨, 오송희 사건의 조성용씨, 서울 충북 거점 간첩단 사건의 송기복씨 등 고인이 변론을 맡았던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쓴 추념의 글들이 실려 있다. 또 강신옥씨, 유현석씨 등 동료 법조인뿐 아니라 김병익씨, 홍성원씨, 김치수씨 등 친교가 깊었던 문단 지기들도 고인의 생애를 복원하고 있다.

황변호사는 6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21세의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5세에 판사로 임관됐다. 30세가 되던 1970년, 점점 커가는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본의 아니게 변호사로 개업한 것이 인권변론으로 들어선 길이



왼쪽부터 한승헌·故조영래·황인철 변호사

됐다. 황변호사가 맡은 시국 인권 관련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한승헌 변호사의 필화사건, 동일방직 노동사건, YH사건, 김재규 사건, 미문화원 방화사건, 건국대 사건, 윤석양 사건 등이다. 김대중 등이 구속된 3·1 구국선언 사건을 변론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고 물어 법정을 숙연케 한 일은 유명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결같이, 순한 얼굴 생김새에 형형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황변호사의 풍모를 마치 손에 쥐어주듯 그리고 있다.

암과 투병하다가 53세의 나이로 그가 영면한 날은 공교롭게도 93년 1월 20일, 그의 주보성인 세바스띠아노(로마 황제의 근위병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로마 황제의 비리를 지적하다가 순교한 성자)의 순교일이었다.

## 조영래 변호사의 눈물

황인철 변호사의 영결식 때 그의 옆에 살막내아들은 "우리 아빠는 더없이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는가요" 하고 울음 섞인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90년 12월 43세의 나이로 운명하고 조영래 변호사는 황변호사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 나란히 같은 사건을 변론하기도 한 인권변호사였을뿐 아니라 형제 많은 집의 큰아들로 태어났으며,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며 가까운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동해 정확처분을 받았고, 서울법대에 입학한 뒤 전태일이 분신하자 사법시험 준비를 집어치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열정을 보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 다니던 중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6개

월을 복역했으며, 이후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 6년 가까운 피신생활을 했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 평전」은 그 피신 생활 중에 집필한 것이다. 80년 3월야야 수배가 해제되었고, 중도하차했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83년, 그의 나이 36세 되던 해다.

그후 애석하도록 짧은 시간 동안 조변호사는 눈부신 활동을 했다. 「조영래 변호사 변론선집—그 인권변론의 발자취」에는 망원동 수재 사건, 대우 어패럴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이경숙 사건(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문제) 등 고인이 맡았던 사건들의 변론 전문이 실려 있어 그의 명석함과 치열성을 엿보게 한다. 또 조변호사가 남긴 글모음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에는 그가 생전에 발표했던 수습편의 빼어난 칼럼과 수필들이 실려 있다. 조변호사의 섬세한 내면을 담은 일기와 편지, 그리고 지인들의 추모의 글들도 함께 게재되었는데, 그 가운데 권인숙 씨가 쓴 추도사의 한 대목은 고인의 파란많은 생애를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었든가를 어렵거나 짐작케 한다.

“...조변호사님이 자주 집견을 오셔서 상세하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스크랩해 오신 제 사진 기사나 칼럼 등을 보여주실 때도 저는 그 자상함의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제 재판 1심 변론을 하실 때였어요. 조변호사님은 변론을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마치신 후에도 내리 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야 저는 처음으로 조변호사님이 제가 당한 성고문사건을 얼마나 깊게 아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이 사회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통탄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강 기자